



第2次 理事會議錄

日時 : 1973年 6月 13日 오후 6時

場所 : 圖協事務局

參席 : 李瑄根(會長) 金斗弘, 金世翊, 金允泰, 金鍾文, 朴啓弘, 朴致旭, 朴熙永, 徐章錫, 孫成祐, 李春熙, 任鍾淳, 尹龜鎬(監事) (가나다 순)

金斗弘(專務理事) : 現在 理事님들이 한분도 빠지지 않고 다 參席하신 것 같습니다. 公私間 바쁘실텐데 도와주셔서 感謝합니다. 그러면 成員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理事會를 始作하겠는데 會長님의 命을 받아 제가 司會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案件의 順序에 따라서 事務局報告와 事業進陟報告를 事務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根滿(事務局長) : 油印物에 의하여 事務局報告 및 事業進陟報告를 아래와 같이 하다.

(사무국 보고

- 가. 4. 14 의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고대의대) 개최
- 나. 4. 17-19 본협회 5년간(1968-72)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
- 다. 4. 24 용인군립도서관 개관
- 라. 4. 28 연세대의대도서관 이전 및 간담회 개최
- 마. 5. 16 2/4분기 국고보조금영달(1,288,500원)
- 바. 5. 17 임원취임승인(문교부장관)
- 사. 5. 30 74년도 본협회 국고보조금 문교부책정액(9,992,000원)결정

사업진척보고

- 가. 한국도서관통계
 - 조사서 수집하여 집계중 7월말 발간예정
- 나. 선정도서사업
 - 선정도서목록(1971-1972)인쇄중 7월말 발간예정
- 다. 도협월보
 - 6월호까지 발행완료 매월 1,700부 계 10,200부 발행완료
- 라. 배부함사업
 - 배부자료 수집하여 회원도서관에 발송 중

金斗弘(專務理事) : 지금 報告된 事項에 대해서 質問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별 말씀이 없으시면 접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동 동의 없이 접수 통과시키다.—

金斗弘(專務理事) : 다음은 專門委員會 委員 認准에

대한 일인테요. 委員名單이 油印物로 別添 돼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專門委員長께서 해주시면 했는데 아직 참석치 않으셨으니 사무국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大權(總務部長) : 理事님들께서 油印物을 보셔서 짐작이 되시겠습니까만 以前에 手苦하시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차례 전문위원장님과 몇분 이사님과 그리고 사무국이 협의를 하여 일단, 각 분위기를 내정하고 분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들을 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후 인선된 명단을 가지고 새로 能力 있는 분들을 적소에 配置 하느라고 專門委員長님과 各分科委員長님들이 數次 協議를 해서 添付된 油印物과 같이 案이 作成된 것입니다.

金斗弘(專務理事) : 이제 경위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다.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啓弘(理事) : 原案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朴致旭理事의 재창이 있어 滿場一致로 通過시키다.

金斗弘(專務理事) : 다음은 全國圖書館大會에 관한 일인데 우선 사무국에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根滿(事務局長) : 이미 잘 아시는 일입니다만 綜合大會로 이끌어 온지도 數年이 지났고 昨年에는 慶北大邱에서 開催하였는데 全羅道地方에서는 아직 綜合大會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全南地區에서 大會開催를 主管할 뜻을 표현바 있습니다.

會長(李瑄根) : 日前에 文化財保護講演관계로 해서 光州에 내려 갔었는데 圖協의 全南地區協議會長인 梁東均氏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만났는데 그때도 大會를 全南에서 開催했으면 하는 뜻을 밝히고 지원을 요청하드군요. 제 생각에도 支援할 수 있는 豫算은 얼마나 되는지 協助를 해서 全羅道地方에서 한번도 開催된 일이 없었다니 全南地區에서 開催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朴熙永(理事) : 今年 大會를 全南에서 開催한다는 것만 決議를 하고 場所와 時期 및 其他 問題는 事務局과 主權地區 當事者들이 協議해서 결정하도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滿場一致로 동의 의결하다—

金斗弘(專務理事) : 다음은 IFLA 總會에 관한 일인데 첫째는 이번 39次 總會에 韓國代表를 派遣하는 問題와 둘째는 1975年度 第41次 總會에 대한 問題입니다. 우선 그 추진 경위를 事務局에서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崔根滿(事務局長) : 우리 代表를 派遣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協會의 豫算이 넉넉하면 적격한 사람을 필요한 만큼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原則이겠지만 경비가 없어

서 自費로 갈 수 있는 분을 전 회원에게 안내를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니다. 申請된 분이 金斗弘專務理事, 朴啓弘 理事, 國防科學研究所의 金宗會 先生, 延世大學校의 李炳穆 先生, 大邱의 원화여자중고교장 李應昌 先生, 晉州의 대아중고교장 朴鍾漢 先生 등 6명과 事務局에서 朴大權 部長등입니다. 그리고 41次總會에 대한 일은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결정하고 등 總會를 적극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니다.

金斗弘(專務理事) : 韓國代表로 參席하는 것이니 理事會가 결의를 해야겠고 또 혹시 더 추가 한다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長(李瑄根) : 이번 總會의 主題가 무엇입니까? 우리 代表가 參加하게되면 主題發表라든지 現況報告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된다면 미리 準備를 하여 會議에 임해서 좋은 發言을 하면 영향력도 발휘하게 되고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代表가 여러 분이 가는데만 인솔자가 있어야 하겠고 제 대신 전무이사가 가게 되니 전무이사를 단장으로 한다든지 인솔자로 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金斗弘(專務理事) : 이번 總會의 主題가 “世界書誌統整事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 國內에서 이와 연관 있는 UNISIST에 대한 세미나가 KORSTIC과 UNESCO의 공동주최로 개최한 바 있고 관계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에 적극 참여한다는 결론을 갖인 바 있으니 우리도 할말은 있을 것 같습니다.

徐章錫(理事) : 金斗弘 專務理事를 團長으로 해서 모두 7명의 한국대표를 派遣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一滿場一致로 결의하다一

金斗弘(專務理事) : 그러면 오늘 會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手苦하셨습니다. 感謝합니다.

第1回 分科委員長會議錄

日時 : 1973年 6月 22日 午後 3時

場所 : 圖協事務局

參席 : 張一世(委員長), 金宗會, 司空哲, 尹炳泰, 李丙洙, 崔成眞(가나다순)

張一世(委員長) : 오늘 特別한 案件이 있어서 모였다고보다 지난 13日 理事會에서 專門委員會가 인준되어서 儀禮的인 모임으로 召集이 된 것 같습니다. 專門委員會 活動이 그동안 活潑치 못했고 할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KDC와 KCR이 결판되지 오랬고 要求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圖書館大會라든지 讀書週間 또는 事務局에서 繼續的으로 推進하고 있는(選定事業등) 事業 등 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라도 결실을 맺는 專門委員會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아울러 우리의 方向이 設定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李丙洙(分類分委員長) : KDC를 再刷하는 것은 改正作業과 관계가 없으니 제가 알기로도 要求가 많은 모양인데 속히 刊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司空哲(用語分委員長) : 改正하는 일도 分野別로 서서히 하나하나 Supplement로 내면 나중에 이것을 綜合하면 作業도 쉽고 좋을 것 같습니다.

李丙洙(分類分委員長) : 大端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KDC도 部分的으로 改正作業을 해서 月報에 掲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昨年에도 實質的으로 委員들이 勞力을 많이 했는데 이에 대한 補賞이 없어서 大端히 未安했습니다. 今年엔 우선 委員들을 만나봐야 하겠습니다만 역시 걱정입니다.

張一世(委員長) : 어떻게든 KDC를 再刷하는 問題는 大端히 時急한 것이니 우선적으로 分委를 열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分委도 역시 一次 모여서 전체가 綜合的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崔根滿(事務局長) : 그동안 專門委員會 活動이 침체했고 반면에 애로도 大端히 많았던 것이 事實입니다. 그리고 財政이 넉넉치 못하니 委員들의 手苦에 대한 補賞도 잘못했는데 반면에 얼마 안되는 연구비지만 연구비만 支拂하고 成果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까 월보에 掲載하는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니다만 이 문제를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張一世(委員長) : 叢書關係도 一次 檢討해 봐야하겠는데 今年度 出版計劃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大權(總務部長) : 叢書 및 번역서 관계는 당초 計劃에 3種으로 되어 있었으나 1種이 豫備費로 되어 있어 豫備費를 使用할 수 있게 된다면 3種을 發刊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現在로서는 “중국어인쇄술의 발명 및 그 西傳”, “자연과학 서지” 및 “LC분류법개론”등 번역물 3種이 신청되어 있습니다만 좋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洙(分類分委員長) : 지금 말씀한 Title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叢書는 全體 圖書館이 一般的으로 tool로서 使用할 수 있는 책을 著述 번역하는 것이 앞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一般性 있는 Title이 계속해서 나올 수 없고 또 圖協의 豫算執行에 애로와 고충이 있는 것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

나 可能하면 選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금년에 계획대로 될지 의문입니다만 두중 出版할 豫定입니다.

尹炳泰(書誌分委員長) : 앞서 言及된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China and It’s Spread Westward” 는 이미 日帝때 번역이 됐고 또 韓國에 관한 것은 약 5 page 정도로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張一世(委員長) : 이런 問題는 出版分委에서 一次 論議해서 檢討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大權(總務部長) : 今年에 翻譯叢書를 2種 出版해서 翻譯叢書는 10卷으로 終結을 지을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一般叢書는 本來 위촉된 著者中에서 아직도 脫稿가 안 된 분이 있습니다.

尹炳泰(書誌分委員長) : 번역에 있어서 LC분류법 해석서보다는 UDC가 우리에게 오히려 요구되고 필요한 책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自然科學書誌 같은 것이 나와야 할것 같습니다.

崔成眞(出版分委員長) : 出版分委를 맡았습시다만 아직 委員들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또 現在 나온 叢書나 앞으로 出版될만한 책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다보니 選擇에 대한 資料가 너무 없어서 學生들에게 宿題도 못내주는 形便인데 多幸히 3年前에 결정한 叢書中 아직 出版되지 않은것은 저자를 바꿀수 있는 再考의 여지가 있다니 그런 方向으로 出版分委에서 一次 論議해 보겠습니다.

尹炳泰(書誌分委員長) : 書誌事業會에서 3가지 책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좋은 計劃이 없습니까?

崔根滿(事務局長) : 당초 이 書誌事業會를 組織하게 된 뜻이 ①國內書誌 活動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體系化함은 물론 分野別 書誌 作成을 學界의 權威者들을 동원해서 이루어보자는 것이었고 ②韓國研究資料를 調査蒐集體系化해서 國內外 學界에 提供하고 특히 外國에서 要求하는 資料를 보내줘서 結하여 수익도 올릴수 있는 方案을 모색해 볼려는 의도에서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美國에 갔을 때도 전해성 博士와 梁基伯氏 등을 만나서 기금확보 문제와 기술협조 등을 협의하여 상당한 진전도 있었습시다만 우리 여건이 여이치 않아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엔 豫算조차 확보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補助金이 증액되면 또 좋은 program이 시행될 것으로 압니다.

金宗會(機械化分委員長) : 圖書館法이 制定 施行된지도 이제 10년이 경과했습니다. 또한 經濟的인 與件도 많이 向上되고 했으니 이제 文教部는 한번쯤 圖書館에 대한 Survey를 해서 均衡적인 발전의 方向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자극을 주도록 해야 할터인데 현재 文教

部內에는 圖書館行政을 전담할 係조차 없는 形便이니 亦是 協會에서 다시 한번 바람을 이리켜서 어떤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도서관學科의 커리큘럼 문제도 오래전 부터 논의가 된 줄 아는데 이역시 이제에는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方向으로 집중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도협월보가 그만하면 이제에는 面數도 늘리고 內容도 再檢討가 되어서 도서관의 실제 업무에 유익을 주는 方向으로 編輯方針을 改善해야 하지 않나하고 늘 의견 교환도 하고 열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일들이 이번엔 좀 모두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司空哲(用語分委員長) : 그러나 월보는 그대로 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편집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필자가 많은데서는 취사선택이 되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필자가 기근 상태이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리큘럼도 현재 모 대학에서는 이미 그런 문제가 검토되서 커리큘럼을 개선해서 실시하는데 학생들이 안하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崔根滿(事務局長) : 도협월보는 이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필자가 부족하고 새로운 필자를 개척하는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월보가 보조금에 의해서 발행되고 있으니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張一世(委員長) :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專門委員會가 앞으로 일하는 委員會가 되도록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面에서 계속>

10. 中心主題

0. 書誌

위에서 든 例中 “플라스틱에 의한 金屬의 被覆”에서 플라스틱 金屬 被覆의 檢索語에 W. R. U.의 로울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플라스틱(KQJ)

金屬(KEJ)

被覆(KAM)

로울의 사용은 適合率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잘못使用하면 再現率을 低下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注意하여야 한다. Montague¹²⁾에 의하면 로울은 適合率을 높이는 반면 再現率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1) Engineers Joint Council. Thesaurus of Engineering Terms. New York. 1964.

12) Montague, B.A. Testing,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recall, relevance and cost of coordinate indexing with links and role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Documentation Institute. 1964. p. 357~367.

뉴 우 스

國會圖書館長

姜周鎭 博士 辭任

—後任에 金鍾浩氏 就任—

國會圖書館長 姜周鎭博士가 지난 6月 4日付로 依願 辭任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後任에는 6,7代 議員을 歷任한 바 있는 金鍾浩氏가 被命 就任되었다고 한다. 姜博士는 1964年 同 圖書館長에 赴任하여 지난 4日 辭任하기까지 10餘年間 奉職하였으며 姜博士는 在任하는 동안 同 圖書館의 機構擴張(法制資料室, 參考書誌課를 新設)은 물론 書誌業務의 強化와 立法調查活動의 적극화 등 同 圖書館 發展에 많은 貢獻을 하여 名實共히 國會圖書館으로서의 礎를 갖추게 하였으며 또한 1969年 3月부터 1973年 3月까지 4年間은 本協會長(7,8代)을 歷任하면서 本協會 發展과 우리 나라 館界發展에 많은 貢獻을 한바 있다.

世界 最古의 金屬活字本

—本會 尹炳泰 書誌分委員長이 發見—

지난 5月 24日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 世界 最古의 金屬活字로 印刷된 「清涼峇順宗心要法門」이 發見되었다고 한다. 高麗 忠烈王(1275~1308年)때인 1297~8年 사이에 刊行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파리「책의 역사 전시회」에서 밝혀진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1377年刊)보다 79~80년이나 앞서고 現存하는 國內本中 最古本인 癸未字本보다 106년이나 앞선다. 또한 「구텐베르크」의 金屬活字(1450年)보다는 153년이나 앞서는 것이다.

이 책은 가로 13.3cm, 세로 21.3cm, 로서 漢紙 5장을 4점으로 접어 만든 20페이지의 小冊子로서 唐의 順宗(805年)이 禪의 要諦인 唯心에 대해 물은 것을 당시 鎮國國師인 清涼和尚 澄觀이 대답한 內容을 要約한 글이다. 이 책은 高大圖書館에 勤務하는 本協會 專門委員會 書誌分委員長 尹炳泰 先生이 漢籍整理中 發見한 것인데 書誌學界의 關係는 물론 國內外學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全國國立大學校 圖書館長 및 司書長會議 開催

1973年度 春期(第16次) 全國國立大學校圖書館長 및 司書長會議가 지난 6月 15~16兩日間 釜山에서 開催되었다고 한다.

釜山大學校 문장회관에서 열린 동회의에서는 國立大學圖書館의 職制問題, 직 무 및 時間外勤務手當問題, 地方大學圖書館의 職員訓練問題, 外國學術雜誌綜合目錄作成問題, 外國學術雜誌購入에 따른 직접구문배정문제 등이 論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秋期(第17次)會議는 10月頃에 濟州道에서 開催키로하였다고 하며 이번 會議에는 江原大 忠北大 濟州大등이 처음으로 同席하였다고 한다

第 1 次 公共圖書館 세미나 開催

1973年度 第1次 公共圖書館 세미나가 지난 6月 14~15兩日間 大田市立圖書館에서 開催되었다고 한다.

全國의 約 40個 公共圖書館에서 5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는데 첫날인 14日에는 開會式에 이어 “生産의 圖書館人的 姿勢”란 特別講演(李尙圭: 國立中央圖書館長)과 “生活의 科學化와 圖書館의 使命”(張一世), “農村地方의 圖書館 計劃”(姜禮權) 등의 主題講演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오후부터는 當面課題에 대한 討論이 있었으며 둘째날인 15日에는 見學과 太田에서 約 24km 떨어진 東鶴寺 觀光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고 한다.

柳東烈 課長 歸國

日本國會圖書館의 招請으로 5月 7日 渡日했던 서울 大學校附屬圖書館의 柳東烈 課長이 지난 6月 6日 North West 機便으로 金浦空港着 歸國하였다고 한다.

柳課長은 서울大學校의 綜合化에 따른 圖書館 綜合化計劃樹立을 위한 資料蒐集次 渡日했던 것인데 日本 國立國會圖書館에서의 短期研修(各部署의 機能 및 施設 現況)와 1週日동안 日本內 유수한 大學圖書館의 業務와 機械化施設에 대한 見學은 물론 많은 資料를 蒐集하고 歸國하였다고 한다.

1973년 7월 1일 인쇄
1973년 7월 5일 발행

<월간> 도 협 월 보

제14권 제 7호

발행인 강주진
편집인 최근만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서울특별시중구소공동6 (국립중앙도서관 구내)
(우편번호 100) 전 화 (22) 4864·5613
진 체 서 울 3753
사 서 합 서울국제 2041
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라-29
인 쇄 인 삼성인쇄주식회사